

모심으로 하나되는~

# 포덕 163년 천일기념

포덕 163(2022)년 4월 5일

 천도교중앙총부





포덕 163년

# 天 日 기 념



포덕 163년 4월 5일

 천도교중앙총부

##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제13장 기념송	10
천덕송_제15장 천일기념가	12
포덕문	14
수운 최제우 대신사 약력	18

#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포덕문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포상 및 장학증서 수여

1. 천덕송 합창\_ 제15장 천일기념가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 기 념 사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오늘은 수운 대신사께서 경신년(庚申年)에 무극대도를 득도하시어 천도교를 창명하신지 163년째 맞이하는 자랑스러운 천일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오늘 천일 기념일을 맞아 포덕천하의 역군이 되어 대신사께서 창명하신 시천주(侍天主)의 진리가 온 세상에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성지우성(誠之又誠) 하시기를 심고 합니다.

대신사께서 탄생하신 조선조 말엽은 유학(儒學)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무규범 사회로 전락한 나머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도참설(圖讖說)에 현혹되거나 승지(勝地)를 찾아 방황하는 등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신사께서

는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까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사회상을 한탄하시면서 “유도(儒道) 불도(佛道)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서구세력의 침략으로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중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인한 위기의식까지 접친 나머지 보국안민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신사께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방황하는 민중을 구제하기 위한 제인질병(濟人疾病) 광제창생(廣濟蒼生)의 일념으로 오랜 구도 고행 끝에 경신년 4월 5일에 무극대도를 득도(得道)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명된 무극대도는 당시 민중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시 개혁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상사회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전통사회 가치관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혁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무극대도의 창명은 첫째로 인간을 차별시하던 선천사회에 일대 변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신사께서 각득하신 시천주(侍

天主) 진리는 신(神)과 인간에 대한 종속적 불평등을 타파하여 이 세상 백천 만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신령한 존재(最靈者)’로 정의함으로써 재래의 신화적 세계관을 혁신하는转机(轉機)를 이룩하였습니다. 인내천(人乃天)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전적 신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시천주는 분명히 미래사회의 가치관을 변혁시켜 새로운 인류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대신사께서는 동귀일체(同歸一體)의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천주란 신과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신인합일(神人合一)의 가치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우주가 하나이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이며, 인간과 인간이 하나인 것이 시천주입니다. 너와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닌 공동운명체라는 시천주의 인식을 바탕으로 각자위심(各自爲心)을 배제하여 동귀일체(同歸一體) 하는 지상천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천개벽에 기초한 수운 대신사의 역사관은 왕조 중



심의 선천적 역사를 시천주의 진리로 재조명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천도교는 온갖 역경과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동학혁명과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민족사의 굽이마다 보국안민의 선봉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신사의 이러한 신념은 각자위심에 물든 구시대의 낡은 세력에 의해 이단(異端)으로 몰리는 수난을 당했습니다. 결국, 대신사께서는 포덕을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대구 장대에서 참형(斬刑)을 당하여 순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에 우리 역사는 당시의 위정자를 비판하면서 대신사의 신념과 순도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오늘 천일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스승님께서 생명을 바쳐 지켜온 시천주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깊이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천주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구는 온난화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온 지구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만을 위하는 삶에서 만물을 위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가는 삶, 지구를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겪어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만물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만물을 공경하며 나도 살리고 자연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대신사께서는 ‘한번 입도식을 거행하는 것은 한울님을 영원히 모시겠다는 중한 맹세(一番致祭 永侍之重盟)’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천도교에 입교한 우리 교인들 모두가 입교식 때 서천문에서 맹세한 그대로 초심(初心)을 지켜 성·경·신을 다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도록 거듭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는 천일기념을 거듭 경축하면서 우리가 모두 스승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천덕사은(天德師恩)에 보답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당부하면서 이만 기념사에 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3(2022)년 4월 5일  
천도교 교령 박 상 중 심고

## 제13장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올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쨌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쨌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득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닷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중 을 시 고 중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중 을 시 고

## 제15장 천일기념가

1. 한 올 님 의 높 으 신 - 목 소 리 로  
 2. 한 올 님 은 두 러 말 라 하 시 며 서  
 3. 한 올 님 이 우 리 스 만 나 - 서 서  
 4. 한 올 님 이 우 리 스 만 나 - 서 서  
 5. 한 올 님 이 우 리 스 만 나 - 서 서

1. 우 리 스 승 을 크 세 부 르 실 - 때  
 2. 우 리 스 스 - 승 을 크 세 부 르 실 - 때  
 3. 처 음 으 - 로 그 공 이 루 실 - 때  
 4. 내 마 이 음 이 곧 네 맘 이 다 하 실 - 때  
 5. 마 이 기 - 베풀 로 즐 기 실 - 때

1. 구 질 구 질 오 - 는 비 는 개 었 고  
 2. 맑 - 은 바 람 은 천 히 불 고  
 3. 큰 - 밤 을 깨 처 우 는 님 소 리  
 4. 잔 나 비 부 르 그 아 - 칩 - 고  
 5. 온 우 주 를 치 음 는 그 아 - 칩 - 고

1. 짐 은 구 림 은 사 라 졌 구 나  
 2. 용 담 물 은 고 요 하 구 나  
 3. 새 벽 의 소 울 을 해 주 누 나  
 4. 봉 황 실 의 소 울 을 해 주 누 나  
 5. 등 실 의 소 울 을 해 주 누 나

후렴

거룩하신 스승말씀에

사람이 곤한 울인 - 줄

우리들이 깨달았으니

잊지 못할 이 아 - 침

## 布 德 文 (포덕문)

盖自上古以來 春秋迭代四時盛衰 不遷不易 是亦天主造化之迹 昭然于天下也 ①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 니하니 이 또한 한울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愚夫愚民 未知雨露之澤 知其無爲而化矣 ②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무위이화로 알 더니,

自五帝之後 聖人以生 日月星辰 天地度數 成出文卷而以定天道之常然 一動一靜一盛 一敗 付之於天命 是敬天命而順天理者也 故 人成君子 學成道德 道則天道 德則天德 明其道而修其德 故 乃成君子 至於至聖 豈不欽歎哉 ③

오제 후부터 성인이 나시어 일월성신과 천지도수를 글로 적어내어 천도의 떳떳함을 정하여 일동일정과 일성일패를 천명에 부쳤으니, 이는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군자가 되고 학은 도덕을 이루었으니, 도는 천도요 덕은 천덕이라.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음으로 군자가 되어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부러워 감탄하지 않으리오.

又此挽近以來 一世之人 各自爲心 不順天理 不顧天命 心常悚然  
莫知所向矣 ④

또 이 근래에 오면서 온 세상사람이 각자위심하여 천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천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 어찌할 바  
를 알지 못하였더라.

至於庚申 傳聞西洋之人 以爲天主之意 不取富貴 功取天下 立其堂  
行其道故 吾亦有其然豈其然之疑 ⑤

경신년에 와서 전해 듣건대 서양사람들은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귀  
는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천하를 쳐서 빼앗아 그 교당을 세우고 그 도  
를 행한다고 하므로 내 또한 그것이 그럴까 어찌 그것이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었더니,

不意四月 心寒身戰 疾不得執症 言不得難狀之際 有何仙語 忽入耳  
中 驚起探問則 曰勿懼勿恐 世人謂我上帝 汝不知上帝耶 問其所然  
曰余亦無功故 生汝世間 教人此法 勿疑勿疑 曰然則 西道以教人乎  
曰不然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教人爲我則 汝亦長生 布德天下矣 ⑥

뜻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어져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리므로 놀라 캐어물은즉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문기를 「그러면 서도로써 사람을 가르치리이까.」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퍼리라.」

吾亦感其言 受其符 書以吞服則 潤身差病 方乃知仙藥矣 到此用病則 或有差不差故 莫知其端 察其所然則 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每有中 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之誠敬耶 ⑦

나도 또한 그 말씀에 느끼어 그 영부를 받아 써서 물에 타서 마셔본 즉 몸이 윤택해지고 병이 낫는지라, 바야흐로 선약인줄 알았더니 이것을 병에 써봄에 이르른즉 혹 낫기도 하고 낫지 않기도 하므로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그러한 이유를 살펴본 즉 정성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어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사람은 매번 들어맞고 도덕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었으니 이것은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

경이 아니겠는가.

是故 我國惡疾滿世 民無四時之安 是亦傷害之數也 西洋戰勝功取  
無事不成而 天下盡滅 亦不無膏亡之歎 輔國安民 計將安出 ⑧

이러므로 우리 나라는 악질이 세상에 가득 차서 백성들이 언제나  
편안할 때가 없으니 이 또한 상해의 운수요,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다 멸망하면 또한 순  
망지탄이 없지 않을 것이라. 보국 안민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

惜哉 於今世人 未知時運 聞我斯言則 入則心非 出則巷議 不順道  
德 甚可畏也 賢者聞之 其或不然而 吾將慨歎 世則無奈 忘略記出 諭  
以示之 敬受此書 欽哉訓辭 ⑨

애석하도다. 지금 세상사람은 시운을 알지 못하여 나의 이 말을 들  
으면 들어가서는 마음으로 그르게 여기고 나와서는 모여서 수군거리  
며 도덕을 순종치 아니하니 심히 두려운 일이다. 어진 사람도 이를  
듣고 그것이 혹 그렇지 않다고 여기니 내 못내 개탄하거니와 세상은  
어찌 할 수 없는지라, 간략하나마 적어내어 가르쳐 보이니 공경히 이  
글을 받아 삼가 교훈의 말씀으로 삼을지이다.

#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대신사 약력

- 포덕전 36년(1824) 10월 28일 경주 월성군 현곡면 가정리에서  
부친 경주 최씨 옥과 모친 한씨 사이에서 탄생하시다.  
처음 이름은 제선(濟宣) 자는 도언(道彦) 이시다.
- 포덕전 29년(1831) 모친 환원하시다.
- 포덕전 20년(1840) 부친 근암공 환원하시다.
- 포덕전 18년(1842) 울산의 밀양 박씨와 혼인하시다.
- 포덕전 17년(1843) 집이 불타 용담정으로 이사하시다.
- 포덕전 16년(1844) 주유천하에 나서시다.
- 포덕전 6년(1854) 주유천하를 마치고 울산 호암동(일명 여시바윗골)에  
초가 삼간을 짓고 구도의 수행에 들어가시다.
- 포덕전 5년(1855) 3월에 호암동에서 을묘천서를 받으시다.
- 포덕전 4년(1856) 양산 천성산 내원암에서 수행하시다가 숙부의 환원을 직관하시고  
47일만에 하산하시다.
- 포덕전 3년(1857) 천성산 적멸굴에서 다시 49일간의 기도를 마치시다.
- 포덕전 1년(1859) 10월에 경영하던 철점이 파산되어 집과 땅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용담으로 돌아오시다.

- 포덕 1년(1860) 2월에 입춘시를 지으시며 구도의 결의를 다지시다.  
이름 제선을 제우(濟愚)로, 자 도언을 성묵(性默)으로,  
호를 수운(水雲)으로 고치시다.  
4월 5일 용담에서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시다.  
5월 용담가를 지으시다.
- 포덕 2년(1861) 6월부터 포덕을 시작하자 어진 선비들과 민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다.  
7월에 포덕문, 8월에 안심가를 지으시다.  
11월에 유생들이 서학으로 몰아 관으로부터 탄압이 있자  
제자 최중희를 데리고 남정길에 오르시다.  
12월 호남지방 남원 교룡산성 隱跡庵에 은거하시다.
- 포덕 3년(1862) 1월에 권학과와 논학문을 6월에 수덕문과 몽중노소문답가를 지으시다.  
7월에 경주부 청송으로 돌아와 박대여의 집에 머무시다.  
9월 많은 제자들이 출입하자 경주영장은 대신사를 체포, 이 소식을  
들은 도인 5-6백명이 모여 영장에게 항의하자 5일만에 석방하다.  
10월 14일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통문을 띄우시다.  
11월 9일 흥해 매곡동 손봉조의 집으로 옮기시다.  
12월 26일에 연원의 효시가 되는 접주(接主)를 최초로 임명하시다.
- 포덕 4년(1863) 3월 9일 용담정으로 돌아와 필법을 지으시다.  
4월에 좌잠을 지어 강수에게 주시다.

6월에 개접(開接)하여 많은 도인들에 가르침을 베푸시다.

7월 23일 파접(罷接)하시다.

이날 최경상에게 해월(海月)의 도호를 지어주시고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하시다.

하순에 도덕가를 지으시다.

8월 초순에 흥비가를 지으시다.

8월 14일 최해월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시다.

11월 불연기연을 지으시다.

12월 10일에 조정에서 파견한 선전관 정운구에게 피체되시다.

대신사와 이내겸은 서울로 압송되고 나머지 30명은 경주옥에 하옥되다.

12월 20일 과천에 당도했다가 철종의 국상(國喪)을 당하여

경상감영에 환송되시다.

포덕 5년(1864)

1월 6일에 대구 감영에 수감되시어

20일부터 혹독한 신문(訊問)을 받으시다.

3월 10일 좌도난정률의 누명을 쓰고

대구 관덕당에서 참형을 받아 순도하시다(41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 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